

고이즈미 '8·15 야스쿠니 참배' 강행 일본은 아시아를 잃었다

韓·中 “깊은 실망과 분노”...日대사 불리 강력항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15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는 즉각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비난 성명을 발표, 한·중·일 외교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오전 7시45분께 도쿄 황궁 규단기타(九段北)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참배후 관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A급 전범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몰자 전반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한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등의 비난을 되레 비판했다. 그는 “8월을 피해도 언제나 비판과 반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이 적잖은 날이 아닌가”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과 중국 등 인접 아시아 국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이날 추규호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정부 성명을 발표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국제사

회의 거듭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수주의적 자세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경색시키고 동북아 역내 우호협력 관계를 훼손해왔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명한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郎)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유 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 17층 대접실에서 가진 오시마 대사와의 접견에서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데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중국인민들의 감정을 엄중하게 해치고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미야모토 유지(宮本雄二) 주중 일본 대사를 소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강력한 분개와 규탄의 뜻을 표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15일 오전 일본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軍부대 전화번호도 내달부터 114 안내

그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힘들었던 주요 군 부대의 대표전화 및 주요 민원부서 전화번호가 114를 통해 공개된다. 국방부는 15일 “국방부 본부를 비롯해 합참, 육·해·공군본부 및 예하 여단급(함대급, 전대급) 이상 군 부대 및 기관의 주요 민원부서 전화번호 114를 통해 9월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전화번호와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서나 해당 지역번호와 114를 누르면 상담원을 통해 이들 기관 및 부대의 전화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LG카드 우선협상자 신한금융지주 선정

M&A 사상최고 7조2천억

LG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금융지주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와 금융권 소식통들은 15일 “LG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금융지주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이에 앞서 LG카드 매각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14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평가 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의 점수를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지주는 주당 6만8천원대의 인수제안가와 85%의 물량을 써내 가격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지주가 적어낸 6만8천원으로 전체 자본(1억2천500여만주·소액주주 물량 포함)의 85%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약 7조2천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총액 6조9천474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이다. /정필수기자 bung@kwangju.co.kr

이효선시장 잇단 망언... 들끓는 광명시

서울 위성도시인 인구 35만명의 광명시가 들끓고 있다. 바로 이효선 광명시장의 ‘전라도 비하 발언’ 때문이다. 이 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여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격앙될 대로 격앙된 상태다.

명색 시장이라는 사람이 지역 차별에 성희롱까지 “당장 물러나라”

내일 사퇴촉구 결기대회

지난 14일 오전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이효선 광명시장 사퇴촉구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사무실. 전화벨이 쉴새 없이 울리고 있었다. 대부분 17일로 예정된 ‘이 시장 망언 규탄 및 사퇴촉구 범국민결기대회’ 일정을 묻는 시민들의 전화였다. 비대위 회원 김모(69)씨는 “명색이 시장이라는 사람이 공직 자리에서 호남출신 시민들을 욕보인 것은 참을 수 없다”며 “광명시에서 35년 동안 살아온 시민으로서 본 때를 보여주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자영업자를 하는 이모(45)씨는 “전라도가 고함인 것이 죄냐”고 반문하며 “이 시장은 대충 알버무리라 하겠지만 광명시민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12일 하안 2동 순시중 기관장들과의 모임에서 전임 시장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 “전라도 놈들은 이래서 욕먹어”라는 요지의 호남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철태 영암군수에게 전화를 걸어 14년간 지속해 온 영암군과의 자매결연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시장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이 제명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3일 스스로 탈당했다. 광명시는 집회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였다. 특히 결기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비대위 측에서 길거리 에 부착한 현수막과 포스터를 시청 공무원들이 떼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근식 비대위 부회장은 “지난 주말부터 광명시측에서 공무원들을 동원, 집회 홍보 현수막과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고 흥분했다. 길거리에서 만난 타 지역 출신 시민들도 이효선 시장 처신이 잘못됐다는 반응이었다. 광명시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만난 김선중(60·광명시 하안동)씨는 “지금 이 3공화국도 아니고 이게 웬 망발이냐”며 “이 시장은 광명시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철호 비대위원장은 “이번 결기대회는 이효선 시장의 퇴진과 함께 지역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행사”라고 취지를 밝혔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물가정보
 http://www.kpi.or.kr
 TEL: 1577-7300 FAX: 1577-4802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日, 독도 등 실질조치로 과거반성 증명해야”

盧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일본은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러 차례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독도,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그것”

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2차 대전이 끝난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평화헌법 개정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역평화와 협

력을 위한 패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과거 동북아의 평화를 깨트린 것은 열강들의 패권주의였고, 그때마다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했다. 리얼전쟁, 청일전쟁도 그 이름과는 달리 열강들이 우리 땅에서 벌인 침략전쟁이었다”며 “불행하게도 동북아에는 지금도 과거의 불안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내일의 CEO

내일의 지도자

내일의 박사

활력이 행복!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활력비타민, 베콤씨! 하루 2알 베콤씨와 함께 활력이 찬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Be~ Happy, 베콤씨!

아침·저녁 하루 2알

우리나라 우리가족의 힘- 베콤씨

www.k33a.co.kr